

日本 各政党의

原子力 施策

어느 나라나 에너지 施策에 대해서는 온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금 当場의 에너지 施策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서 来日의 에너지 施策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点에서 脱石油 에너지 施策에서 原子力 에너지는 크게 注目을 끌고 있으며, 外國에서는 與·野党을 莫論하고 그 나름대로의 原子力 施策을 세우고 銳意來日의 原子力 施策에 대한 檢討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나라 日本의 各政党의 原子力政策을 살펴보기로 한다. 日本의 各党이 발표한 원자력 시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自民黨

原子力開發에 대해서는, 國民의 理解와 努力を 얻기 위해 보다 한층 더 높은 次元에서의 安全性의 確保, 信賴性의 向上에 努力함과 함께 現地 福祉의 向上, 現地理解의 증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촉진한다. 또, 安全性에 관하는 國際協力에 참가한다.

핵연료 사이클의 確立를 도모하기 위해 第2再處理工場의 건설을 추진함과 함께 플루토늄의 국제관리 등의 국제적 겸토에 참가한다. 自主技術에 의한 우라늄 농축, 海外 우라늄 調查探鉱, 高速增殖爐, 新型転換爐, 核融合 등의 개발을 촉진한다.

社會黨

原發은 지금과 같이 운전을 계속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TMI사고는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던 原發의 결함

을 구체적 사실로서 나타내고 있다. 또, 만족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原子力에 電力의相當部分을 의존한다는 것은 逆으로 말해서 安定供給을 파괴하게 된다.

当面으로서, 3~5年에 걸쳐 현재의 原發의 根本의 재검토를 集中的으로 실시한다. 그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새로운 増設이나 운전을 中止한다. 代替에너지인 소프트·에너지·파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公明黨

原子力發電은 현실적 요구가 크다고는 하나 TMI의 大사고를 교훈으로 해서 새롭게 안전성의 확립이 요구된다. 自主기술의 개발은 안전성의向上에 欠할 수 없는 것이며, 정보의 公開, 公聽會 등에 대해서 地域住民과 対話해 나가는 것은住民이 이해를 깊이하며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原子力發電建設에서는 自主·民主·公開의 原則에 입각한 엄격한 심사, 一定의 률下에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환경 아세스멘트와 공청회를 行하는 등을 하여 지역주민의 합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원자력 防災 対策의 확립을 촉진한다.

民社黨

原子力의 平和利用을 추진하기 위해 新資材의 개발, 원자로의 표준화 등 輕水爐의 安全性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심사를 더욱 엄격히 행하기 위해서 原子力安全委員會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현실의 立地難을 打開하기 위해서 국민적 合意를 형성함과 함께 電源立地 交付金 制度의 改善을 도모하며, 地下, 海上의 原發의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다시, 일본의 獨自技術에 의한 遠心分離法 등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 및 既使用 연료 재처리등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新型 轉換爐, 多目的 高溫 가스爐, 高速 增殖爐, 核融合 등의 新技術 개발을 國家의 책임으로서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共產黨

軍事利用의 방지를 도모하는 등 原發 計劃을 평화와 안전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当面의 應急안전 대책으로서는 각각의 原發의 사고나 고장의 빈도수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不안한 점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정지를 행한다든가 出力を 저하시켜서 安全度를 높인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原子力 관계자로서 구성하는 綜合的인 检討회의를 國家의 責任아래서 열며, 그 總意에 따라서 앞으로의 主되는 에너지 산업을 國有化하여 종합 에너지 公社를 설립한다.

新自由클럽

代替 에너지의 主力은 原子力으로 한다. 종래

의 농축 우라늄을 主体로 하고 再처리, 고속증식로라고 하는 核연료 사이클의 확립을 도모하며 天然우라늄의 활용, 다시 토륨 사이클의 개발, 核융합의 연구개발에 기술과 자금, 人材를 投入하여 日本의 原子力개발의 기술적 독립을 목표로 한다.

1990年度의 새로운 목표를 5千万kW, 2000年度 목표를 1億kW로 하고 精力的으로 原發의 건설에 힘을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土地收用法을 特別時限立法으로서 改正하여 合理的인 補償下에서 立地促進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社民黨

原子力 開發에 대해서는 이 선택이 果然 21세기를 向해서 有効한가 어떤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기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미, TMI에 의해서 그 위험성이 더욱 身邊에 가까워진 現今이야 말로 원자력 발전소를 当面 一時停止(모라트리엄) 시켜 後顧의 우려가 없음을 期하는 기회로 할 필요가 있다.

값싼 石油를 前提로 만들어진 현재의 하아드·에너지·파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地球의 환경과 조화하는 소프트·에너지·파스를 선택한다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알기쉬운 原子力入門書 原 子 力

張 基 鎮 著
4·6版 / 191페이지 ₩ 2,000

原子力を 專攻하지 않은 一般工學徒, 原子力行政要員들 뿐만 아니라 一般人에 까지도 알기 쉬운 原子力의 이야기를 解說한 初步的인 原子力의 入門書. 原子力研究所 研修院, 漢陽大學校 工科大學 原子力工學科의 教材 및 一部 原子力產業體의 社內 教育用으로서 널리 採用되고 있음.